

# 제 2차 정기총회

일시 : 2010년 2월 25일 (목)

장소 : 청어람 아카데미



## 목 차

- 사업보고 . . . 1
- 감사보고 . . . 7
- 안건 논의 . . . 11
- “대한민국의 두 얼굴 - 우리사회 양극화” 사업 기획(안) . . . 19

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.

## I . 2009년 사업보고

### ● 총 평

---

- 2009년은 정보공개센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한해였음. 사회적 인지도, 센터 회원 수 등 양적·질적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 해임.
- 알권리 확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법 개정 운동과 메타블로그 사이트 개설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지점으로 판단 됨.
- 상근활동가 1명, 반상근 자원활동가 2명이 늘어나, 사무국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.

### ● 세 부 평 가

---

#### ■ 또 하나의 미디어! 정보공개청구 뉴스사이트 운영

-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와 역할의 중복, 참여 블로거의 한계, 투자 효과 미비 등으로 개설하지 못함.
- 주요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할 지점이지만, 무리하게 이끌기 보다는 과감히 취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.

#### ■ 알권리 확산 Project

##### 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조사

-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여부 및 정보공개교육의 실태를 조사,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공표하고 있는 정보목록의 현황에 대해 조사함. 그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.

※ 언론보도현황

- [서울신문]부처 정보목록 공개 '엇터리'
- [국민일보]전자정부 사이트도 '색깔 빼기'
- [세계일보] 기획 '뒤로 가는 정보공개'
- [세계일보] 행정정보 감추는 공무원 많아... 제대로 알아야 악용 방지
- [제주일보] 수사기관 정보공개 '나몰라라'
- [민중의 소리] 이명박 정부 들어 수사기관 정보공개율 '뚝' 떨어져
- [오마이뉴스] 대통령기록 현황 공개,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
- [한겨레신문] 검경, MB정부 들어 정보공개율 '뚝'
- [연합뉴스] 공공기관들 비밀문서 통보의무 안 지킨다
- [한겨레신문] '비밀문서현황' 기록원에 매년 통보해야 되는데...'법 규정 묵살'

## 2. 법 개정 운동

- 사회 전반적으로 4대강 사업, 미디어법, 언론사 장악, 부자감세 등 중요현안이 많아 정보공개법 개정운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도 작용 함.
- 2010년 지방선거 및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부패문제 등이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법 개정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.
-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'공감'과 법률지원 협약을 맺어 정보공개수수료 등의 법적 대응을 시작함.

※ 언론보도현황

- [오마이뉴스] 판공비 공개하라던 법원, 정작 자신들은 비공개
- [연합뉴스] "정보공개법상 비공개는 공개유예 개념"
- [한겨레] 정보공개법 11년... 행정기관 입은 되레 달렸다.
- [한겨레]공공기록물 '멋대로 폐기' 쉬워지나
- [오마이뉴스]퇴임 대통령기록은 이제 관리 안 하겠다?
- [세계일보] '흙피'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"540만원 내라"

### 3. 정보공개 캠페인

- 정보공개 캠페인 으로 한겨레 신문과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을 진행하였음. 기획자체는 참신하다는 평가가 주류고, 한겨레 신문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. 정보공개청구를 확산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함.
- 하지만 공공/민간 기관들과 함께하는 자발적 정보공개 캠페인 실행하지 못 함.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자발적 정보공개 MOU를 맺은 뒤 실행해 보는 것을 고민.

#### ※ 언론보도현황

- [한겨레]지하철은 '서울시 홍보물'을 싣고 달린다
- [한겨레]정보공개 '꼬리문 공방'
- [한겨레] 정부위탁 재판기 장애인 우선 배정 맞나요?
- [한겨레] '커피 지도'도 강남·북 격차
- [한겨레] 풍력발전단지, 환경평가 피한 비밀은 '인허가 쪼개기'
- [한겨레] “‘정보공개 받기’ 뜻밖에 어렵지 않더군요”
- [한겨레] 호텔 고시원 vs 쪽방 고시원 - 서울인구 1% 고시원에 산다
- [한겨레 캠페인] '스팸' 단속 처벌, 제대로 이뤄지나요?
- [한겨레 캠페인] '학습 준비물 예산' 교육부 지침, 잘 지켜지고 있나
- [한겨레 캠페인] '대통령 이명박' 명절 선물 누가, 어떤기준으로 받나요
- [한겨레 캠페인] 양운재 전 부시장이 기금교수? “서울대발전기금 어찌 쓰나요”
- [한겨레 캠페인] “지하철 광고 과잉”...어떤 광고, 얼마나 실리죠?

### 4. 교육 및 출판

- 연간 3차례 정보공개청구 스터디를 진행 함. 소수지만 꾸준히 진행해, 참가자들 사이에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냄. 또한 회원가입의 통로로도 이용되고 있어 2010년에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.
- 정보공개와 관련된 안내서, 자료집, 사례집, 연구서 등 발간으로 기획되었던 것은 도요새 출판사에서 출판된 '정보사냥'으로 결과물이 나옴.

- 정보공개 관련 토론회는 “창립기념일”과 “전국 기록인 대회”를 통해 2차례 진행 함. 기록 학계 및 언론계 등과 적극적 연대를 통해 더 많은 토론회 및 심포지엄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.

## 5. 언론활동

- 2009년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주목해야 할 사업 중 하나가 언론지원 및 기획이었음. 전직 대통령 사진, 가평군·화천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, 광화문 광장 운영비, 전투경찰 장비 비용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안들이 많았음. 그 결과 방송과 신문 등 370여 차례 보도됨.
- 정기적인 언론기고 등을 늘여,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는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.

### ※ 언론보도현황

- 1월: [서울신문]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‘핑핑’ 외 7건
- 2월: [오마이뉴스] 2000만원 내역도 못 밝히면 몇 백조 지출 어떻게 믿나요? 외 25건
- 3월: [KBS뉴스] 업무 추진비 사용, ‘서초구’ 최소·은평구 ‘최다’ 외 26건
- 4월: [KBS 뉴스] 공무원 마음대로 ‘말로만 정보공개’ 외 23건
- 5월: [MBC 뉴스데스크] '전직 대통령의 일상' 첫 공개 외 30건
- 6월: [오마이뉴스] '대통령기록'없는 노무현 재평가, 의미 없다 외 17건
- 7월: [춘천MBC] 화천군수, 업무추진비로 촌지제공 외 31건
- 8월: [오마이뉴스] 국가기록물 목록 요청에 수수료 540만 원? 외 8건
- 9월: [조선일보] 경찰 진압 장비는 얼마? 외 27건
- 10월: [한겨레] 월 관리비 1억8천만원…돈 먹는 광화문 광장 외 49건
- 11월: [위클리경향] 경찰 용산사건 정보 “꼭꼭 숨겨라” 외 45건
- 12월: [서울신문] 국가기록원 3시간 회의하러 제주행 12건

## ■ 정보공개센터 뿌리 내리기

### 1. 회원 확대

- 2009년 정보공개센터 회원 목표는 400명이었음. 2009년 1차 정기총회 때 244명의 회원이 활동함. 163명의 회원이 증가하여 2010년 2월 16일 현재 40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. 꾸준하게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됨.
- 2010년은 회원 700명을 목표로 함.

<정보공개센터 회원 현황-2010.2.16기준>



### 2. 회원의 자발적 참여

- 회원을 중심으로 현재 2명의 정기적 자원활동가가 활동함. 부정기적으로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20여명이 자원활동을 함.

### 3. 회원과 소통하기

- 1주년기념 후원의 밤(10월9일)과 송년의 밤(12월15일) 두 차례의 회원만남을 진행함.
- 격주간으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상을 알리는 뉴스레터 <정보소식지>를 발행.
- 격주간으로 정보공개센터 회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 <에너지>를 발행.

### 4. 블로그 활성화

- 현재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음.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DAUM View, , 블로

그코리아, Grass log 와 같은 메타블로그, 트위터와 연결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내고자 하고 있음.

- 현재 정보공개센터 블로그는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누리꾼들이 방문하고 있음. 이는 그간 블로그에 축적한 다양한 정보의 아카이빙 덕분이라고 판단 됨. 앞으로도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중심으로한 포스팅을 꾸준히 해 정기적으로 찾는 누리꾼들이 늘어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## ■ 센터운영

### 1. 재정

- 현재 프로젝트 지원금을 제외한 실질적 고정수입인 회비 기준으로 한 재정자립도는 63%임.
- 현재까지는 매달 회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원확대운동과 시민들의 자발적 가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슈를 생산해낼 필요 있음.

### 2. 구성

- 현재 센터 임원진은 대표 2명, 소장 1명, 이사 29명, 자문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매월 운영하고 있음.



## II 2009년 감사보고

### ● 사 업 감 사

정보공개센터 사업감사 : 이광수

감사대상 사업기간 : 2009년 1월 1일~2009년 12월 31일

#### ■ 알권리 분야

- 하루에 한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용을 홈페이지 '오늘의 정보공개청구' 카테고리에 올려 홈페이지 방문자 및 언론등과 연계하고 있음.
- 2009년 알권리확산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던 법 개정 운동은 시도하지 못했음. 4대강, 미디어법, 언론사장악, 부자감세 등 중점현안들이 많아 정보공개법 개정운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도 작용했음.
- 한겨레신문과 함께 정보공개캠페인을 진행해 정보공개청구를 확산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음. 하지만 공공/민간 기관들과 함께하는 자발적 정보공개 캠페인 실행하지 못하였음.

#### ■ 언론지원 분야

- 2009년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활동적인 부분이 언론지원 분야였음. 전직대통령 사진, 가평군·화천군 업무추진비, 광화문 광장 사용료, 전투경찰 장비 비용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안들이 많았고 그 결과 방송, 신문 등 300여 차례 보도되었음.
-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방식은 등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, 2010년도에 이 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. 기획기사나 탐사보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, 언론기고 등을 늘려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함.

### ■ 연구·출판·교육 분야

- 교육분야로는 연간 3차례 정보공개청구 스터디를 진행하였으며, ‘정보사냥’이라는 도서를 출판하기도 하였음.
- 정보공개관련 토론회는 2차례 진행 하였는데 앞으로도 기록학계 및 언론계 등과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토론회를 비롯한 심포지움 등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임.

### ■ 회원활동 분야

- 2009년 정보공개센터 회원 목표는 400명이었는데 현재 404명이 후원중임. 개소 이래 꾸준히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됨.

### ■ 미디어 운영 분야

- 2009년의 주요사업이었던 ‘메타블로그 개설’이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와 역할의 중복, 블로거 역량의 한계, 방법의 부적합성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음. 무리하게 이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 과감히 중단한 것이 긍정적임.

### ■ 센터 운영

-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, 하반기에는 활동가도 충원되어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음.
- 현재 센터 임원진은 대표 2명, 소장 1명, 이사 29명, 자문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 ● 회 계 감 사

정보공개센터 회계감사 : 이재호

감사대상 회계기간 : 2009년 1월 1일~2009년 12월 31일

본인은 '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'(이하 "정보공개센터")가 제시한 제2기 (2009.01.01.-2009.12.31.) 운영계산서에 대하여 담당직원과의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그 결과 상기 운영계산서는 정보공개센터의 당기 운영성과를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 (1) 당기 운영차액

당기 운영차액은 1,746,188 원으로, 이를 운영수입과 운영지출로 나누어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1) 운영수입

운영수입 합계금액은 80,117,108 원입니다. 그 내역을 살펴보면, 일반회비 47,178,670 원, 후원금 16,826,000 원, 아름다운재단 사업지원금 11,222,950 원, 다음세대재단 사업지원금 3,500,000 원, 기타 수입 1,389,488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#### 2) 운영지출

운영지출 합계금액은 78,370,920 원입니다. 그 내역을 살펴보면, 임차료 9,500,000 원, 인건비 38,537,520 원, 복리후생비 7,113,630 원, 사무용품비 1,420,760 원, 후원회밤 행사 등 사업비 17,115,790 원, 지급수수료 1,548,610 원, 통신비 871,420 원, 소모품비 50,750 원, 여비교통비 316,100 원, 잡비 757,800원, 회의비 1,138,540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## (2) 차기이월 운영차액

전기이월 운영차액은 16,101,517 원입니다. 이에 위 당기 운영차액 1,746,188 원을 합하면 차기이월 운영차액은 17,847,705 원이 됩니다.

### III 논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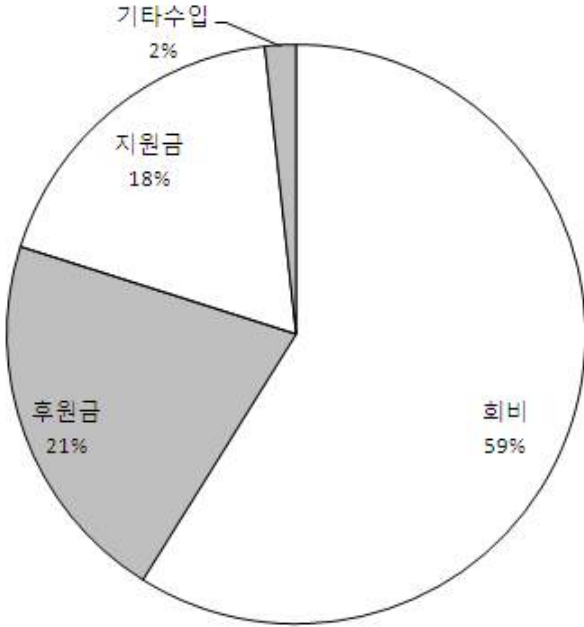
#### ● 2009 결산 및 2010 예산안 승인

##### ■ 2009년 결산 (200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)

비율(%)	年 수입 (원)	계정과목	年 지출 결산 (원)	비율(%)
59%	47,178,670	회비		
21%	16,826,000	후원금		
18%	14,722,950	지원금		
2%	1,389,488	기타수입		
		사업비	17,115,790	22%
		회의비	1,138,540	1%
		급여	38,537,520	49%
		지급수수료	1,548,610	2%
		임차 및 관리비	9,500,000	12%
		복리후생비	7,113,630	9%
		사무용품비	1,420,760	2%
		소모품비	50,750	
		통신비	871,420	1%
		여비교통비	316,100	
		잡비	757,800	1%
<b>100%</b>	<b>80,117,108</b>	<b>계 (연간)</b>	<b>78,307,920</b>	<b>100%</b>

총계 : (+) 1,809,188

### 1. 수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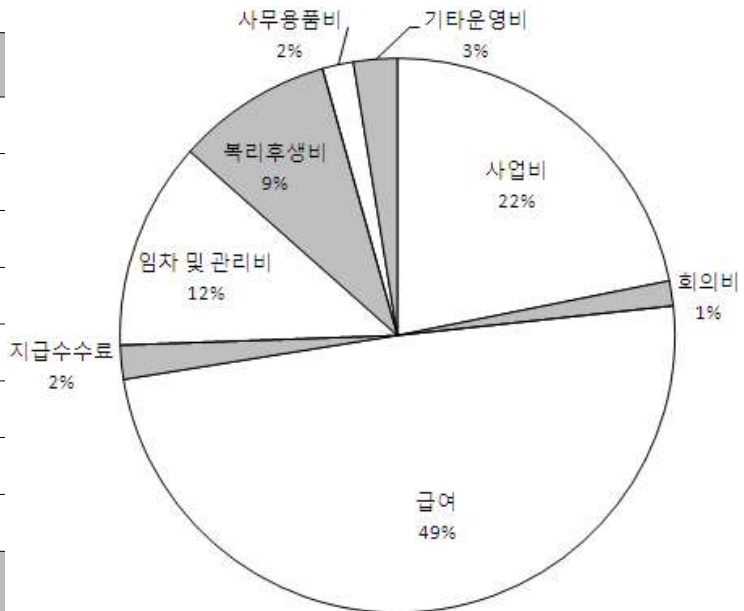
<단위 : 원>

구 분	금 액
회비	47,178,670
후원금	16,826,000
지원금	14,722,950
기타수입	1,389,488
<b>계</b>	<b>80,117,108</b>

### 2. 지출

<단위 : 원>

구 분	금 액
사업비	17,115,790
회의비	1,138,540
급여	38,537,520
지급수수료	1,548,610
임차 및 관리비	9,500,000
복리후생비	7,113,630
사무용품비	1,420,760
기타운영비	1,996,070
<b>계</b>	<b>78,307,920</b>



■ 2010년 예산

(단위 : 원, %)

비율 (%)	年 지출 기준	月 지출기준	계정과목	月 수입기준	年 수입 기준	비율 (%)
			회비	5,000,000	60,000,000	63%
			후원금	800,000	9,600,000	10%
			후원의 밤	890,000	10,680,000	11%
9%	9,000,000	750,000	사업비 (아름다운재단)	750,000	9,000,000	9%
6%	6,000,000	500,000	급여 (아름다운재단)	500,000	6,000,000	6%
50%	47,880,000	3,990,000	급여			
6%	6,000,000	500,000	복리후생비			
5%	4,800,000	400,000	기타 일반 관리비			
15%	14,400,000	1,200,000	임차 및 관리비			
8%	(7,200,000)	(600,000)	상여금			
100%	88,080,000 (95,280,000)	7,340,000 (7,940,000)	계	7,940,000	95,280,000	100%

## ● 임원인선 및 승인

### ■ 현재 임원진 (가나다 순)

<대표>

김영희(MBC PD), 이승휘(명지대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수)

<소장>

하승수(변호사)

<이사>

곽건홍(한남대 기록관리학대학원 교수), 경건(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, 김영희(대표  
겸직), 김용진(KBS 기자), 김용출(세계일보 기자), 김유승(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), 도류  
(불도암 주지스님), 박순서(KBS 기자), 설문원(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), 정재호(KBS 기  
자), 손미영(주부), 신동호(경향신문 기자), 이민규(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), 이소연(덕성여  
대 문헌정보학과 교수), 이승휘(대표겸직), 이재명(한겨레 기자), 이재정(변호사), 임미옥(주  
부), 정광모(전 여의도통신 기자), 정재호(국민일보 기자), 조국환(그랜드퍼시픽 대표이사),  
조영삼(한신대 국사학과 교수), 조호연(경향신문 기자), 하승수(소장겸직), 한학수(MBC PD),  
홍일표(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), 황성섭(SM스포츠 대표이사)

<감사>

이광수(변호사), 이재호(홍익대 법학과 교수)

<자문위원>

김진덕(덕일종합개발 대표이사), 박대용(춘천MBC 기자), 엄경섭(녹영종합건설 대표이사), 오  
승은(제주대 행정학과 교수), 이현정(명지대 기록관리학 박사과정), 임정섭(미디어홍 미디어  
팀장), 장병인(위디랩 전략기획담당 부사장), 전종익(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, 정헌배(케



이넷피 기획실장, **홍소영**(미디어 흥 대표)

■ 추가 임원 선임 안

1) 이사 선임

- 김여선 (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- 서경기 (여울교회 목사, 하나봉사회 사무총장)
- 성창재 (변호사)
- 장유식 (변호사)

2) 대표 선임

- 서경기 (여울교회 목사, 하나봉사회 사무총장)

## ● 2010년 사업 계획

### ■ 2010년 주요 활동 목표

**첫 번째,** 2010년을 정보공개센터 양적, 질적 도약의 한해 (회원목표 700명)

**두 번째,** 알권리 확산 2.0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 거버먼트 2.0운동 전개, 교회 및 비영리단체의 자발적 투명성 운동 전개

**세 번째,** 정보공개청구 학교를 개설하여, 일상적 정보공개청구 교육 실시

**네 번째,** 새로운 공간 임대를 통한, 3년차 정보공개 운동 본격화

**다섯 번째,**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시민사회와 연대와 공유 실천

### 1. 정보공개센터 양적, 질적 성장

- 2010년 회원 700명 달성을 목표
  - : 2010년을 양적, 질적 측면에서 명실상부 한 중견 단체로 성장을 도모
- 분기별 회원활동
  - : 2월 정기총회, 5월 회원소풍, 10월 창립기념일, 12월 송년의 밤 정례화
- 회원 뉴스레터 활성화
  - : 정보소식지와 회원소식지 발송 정례화
- 신입회원 한마당 신설
  - : 신입회원과의 친밀도 형성을 위해 분기별 신입회원 한마당 신설
- 임원진 활동 활성화

- : 이사진들의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활동 강화 (연구위원회, 재정위원회, 교육위원회 등)
- 자문위원 역할 실질화
  - : 격월간으로 이사회 회의에 자문위원들을 참석하는 연석회의 신설

## 2. 알권리 확산 2.0 프로젝트

- 거버먼트 2.0운동 본격전개
  - : 공공기관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캠페인 추진
    - ex) 종교기관과 협력하여, 교회 회의록 / 재정 공개 등
- 포털로 통한 공공기록 검색하기
  - : 지방선거 이후 각 구청 및 시청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고, 각 포털 사이트에 제공해 로컬 거버먼트 2.0운동 전제
- 제 2차 정보공개청구 대회 개최
  - : 연말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제 2차 정보공개청구 운동 개최. 협찬 등을 통해서 상금 상향 조정
  - : 방송에서도 주부프로그램,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강의 개최 하고 캠페인 진행

## 3. 정보공개청구 학교 개소

- 정보공개스터디를 정보공개청구 학교로 확대해 교육 기능 강화
- 강사풀을 늘리고, 찾아가는 교육, 시민단체 활동가를 위한 교육, 지자체 시민 대상 교육 등 교육커리큘럼을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청구 스터디 프로그램을 확대함
- 3월, 5월, 8월, 11월 총 4차례 진행 (기본반 및 심화반 동시진행)
  - \* 기본반 : 정보공개청구의 이해, 정보공개법 분석, 정보공개판례, 기록물관리법으로 본 정보공개청구, 실습 (총 5회)
  - \* 심화반 : 정보목록 및 BRM 분석을 통한 정보공개청구, 정보공개청구 접수자 입장으로 본 정보공개대응, 해외 우수 정보공개청구 사례 수집, 정보공개청구와 탐사보도
-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정보공개청구 강의를 더욱 확대 서비스

#### 4. 정보공개센터를 연대의 장으로

- 지역감시, 권력감시 단체들과 정보공개청구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시민감시 영역 확장
- 지방선거 이후 조직적이고,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감시활동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교육 및 공유
- 지역단체를 통해 정보공개센터는 간사단체가 되어 각 지역단체들에 제안서를 돌리고,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 수행

#### 5. 연구 기능의 준비 및 도약

- 2010년 연구 및 출판 준비의 해로 삼음
- 이사진에서 연구출판 소위원회 구성하여 연구출판을 위한 지속적인 회의 및 재정 마련
- 2011년에 연구 및 출판 사업의 본격화

#### 6. 3년차 정보공개운동을 새로운 공간에서

- 2010년 사무실 임차기간 완료됨. 센터 거취 문제에 대해 대안 마련해야 함 (재계약 or 다른 단체와 함께 합쳐 사무실 이주)
- 새로운 공간 마련을 위해, 타 단체들과 연대 모색 중

#### 7. 기획 정보공개청구

- 단발성 정보공개청구가 아닌, 하나의 주제를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해 기획아이템으로 1년 동안 진행함 : 우리사회 양극화 진단 【붙임 1】 참고
- 정보공개청구로 역사찾기 (국치 100년, 한국전쟁 60년, 4.19 50년, 5.18 30년 등)

【붙임 1】

## “대한민국의 두 얼굴 - 우리사회 양극화” 사업 기획(안)

### ● 기획 배경 / 의도

- 우리 사회의 ‘양극화’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제시되어온 화두 중 하나임. 하지만 양극화문제에 대해 각 분야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 실상임. 더욱이 최근 경제 한파로 중산층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 있음.
- 소위 부자동네와 가난한동네는 서로 다른 소비패턴으로 작게는 커피숍부터 크게는 백화점 입점 수 까지 다를 뿐 아니라, 이는 교통 및 병원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있어야 할 시설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.
- 경제적 측면의 양극화는 수입과 소비에 그칠 뿐 아니라 주거, 의료, 교육 등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으로 ‘부익부 빈익빈’ 현상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또한 이러한 차이는 개인적, 사회적 측면 외에 국민과 국가 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,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기관장이 고급승용차를 타고, 공공기관에서는 호화행사를 치르는 등 국민의 삶의 질과는 상반되는 기관의 세금유용 모습 또한 양극화의 한 면이라 할 수 있음.
- 본 기획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우리사회의 양극화 모습에 대해 짚어 분야별, 세대별,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시켜 정리해보고자 함.

### ● 조사 방법

- 정보공개청구 :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
- 공표정보 활용 : 프리즘의 연구용역자료, 통계청·이나라지표의 통계자료, 내고장 살림의 지자체별 지표분석

## ● 내 용 / 구 성

### 세대별로 본 양극화

- 연령별로 구분하여 양극화 모습 살펴봄

#### ◆ 어린이 (영어유치원 vs 24시간 어린이집)

- 서울 각 지역별 24시간 어린이집, 영어유치원 등 어린이집 분포 현황.
- 소득별 자녀 교육비 지출 비율.

#### ◆ 청소년 (학교 안녕! 유학 vs 유급)

- 교육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유별 학업중단 학생을 살펴볼 수 있음. 유급=빈곤층 이라는 공식이 설립하는 것은 아니라 무리수일수는 있지만, 각 지역별로 조기유학 비율은 파악 될 것으로 보임.
- 이 밖에도 무료급식, 비싼 전형료로 인한 대학 원서접수 제한 등도 소재가 될 수 있음.

#### ◆ 청년 (탄탄직장 vs 노량진 고시생)

- 대학별 정규직, 비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활용해 좋은 학벌, 고학력, 다양한 스펙이 있어야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줌.

#### ◆ 장년 (벤츠와 양주 vs 버스와 소주)

- 관세청 정보공개청구로 외제차, 명품, 양주 등 고가물품의 연도별 수입현황 정보공개청구해 고가의 물품이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살펴봄.
-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.
- 주택보유현황

#### ◆ 노년 (실버타운 vs 박스줍는 할머니)

- 기초생활수급자 현황.
- 지역별 의료시설 분포 현황

## 주제로 본 양극화

- 각 사회 분야별로 양극화 모습 살펴봄

### ◆ 문화양극화

- 지역별 영화관(각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영화관)
- 지역별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공연장 현황
- 해외여행 현황(소득별, 지역별)
- 지역별 도서관 수

### ◆ 복지양극화

- 각 지역별 복지예산(장애인, 청소년, 노인 등 대상별 복지예산비교)
- 지역별 사회복지관 수 및 지원금액
- 장애인 화장실
- 노숙인 현황 및 부랑인시설 현황
- 지역별 무상급식현황(지역양극화)
- 대중교통 현황

### ◆ 의료양극화

- 각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 현황(병원의 규모/ 법인 등)및 병원비 차이
- 각 지역의 약국 및 보건소 현황
- 건강보험의 실태(건강보험의 보장성-어디까지 보장되나?)
- 건강검진 현황(저소득층 건강검진실태)

### ◆ 교육양극화

- 계층별, 지역별 사교육비 현황
- 각 대학별 국가지원 연구비 지원 비율
- 자사고 특목고의 등록금 현황
- 대학별 등록금 현황
- 대학 내 장학금 현황(장학금 지급 형태 및 수령현황)

- 국립대학 장학금신청 통계를 통해 가정 소득수준(2007년 서울대 장학금신청한 신입생 중 60%이상이 고소득층 자녀)
- 각 대학별 교원 및 국회의원, 고위공무원 출신학교 현황

◆ 소비양극화

-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(백화점과 중소상점 비교) : 소비양극화 심화...명품소비 ↑ 생필품 판매 ↓
- 관세청에 등록된 외제차 및 주류, 명품등의 수입현황
- 음식소비문화 : 전국 주요 패밀리레스토랑 개수 및 매출동향
- 백화점 및 주요 대형마트의 식료품 값과 시장의 식료품 값 비교

◆ 정보, 통신의 양극화

- 개인용 컴퓨터 사용 및 보급률/ 인터넷 이용률(도시의 저소득층, 노인, 장애인과 농어촌 · 산간벽지 주민등 정보화 취약계층의 개인용 컴퓨터(PC) 보급률)
- 전화 설치율(지역간, 소득계층간)

◆ 주거의양극화

- 주택보급률 vs 무주택가구수
- 지역별 주택매매가격
- 대학가 자취방 현황 및 각대학별 기숙사 현황
- 영구임대아파트 현황(신청자 수/ 대기 시간/ 임대료 현황 및 임대료체납 가구 수)
-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현황(가장 비싼 분양가 vs가장 싼 분양가격-평균가격)
- 주거빈곤층 현황 (노숙자 수/ 비닐하우스, 판잣집 등에 거주 하는 사람 수)
- 공공임대주택 비율 외국과 비교

◆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

- 매출이익
- (금융감독원)주요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보유액
- (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)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자금조달 방법



◆ 노동양극화

- 대기업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간의 임금차이
-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이
- 대학 내 교수와 시간강사 임금차이
- 노동조합의 수 및 조합원 현황(지역별 및 기업종별)